

## 02

# 제주 Dark Tourism과 역사 학습<sup>1</sup> - 모슬포지역 일본군 전적지를 중심으로 -

황석규\_제주다문화교육센터  
sukkyuhwang@hanmail.net

1. 머리말
2. Dark tourism의 대상지 구분과 역사 학습
3.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적 의미
4. 역사 학습의 장
5. 결론

Dark tourism은 역사적으로 죽음, 재난, 고통, 참상이 일어났던 지역을 여행하며 반성과 교훈을 얻는 인간 행위이다. 제주의 경우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dark tourism의 많은 대상지를 지닌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

역사적 사실정확성을 조사하고 연구한 작업들이 확대되면서 4·3비극의 장소와 평화공원 그리고 모슬포지역 일본 군사시설에 관한 dark tourism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두 장소는 제주 dark tourism의 새로운 관광 패턴을 창출하는데 주요한 대상지임에 틀림없다. 특히 두 장소는 방문객에게 제주사회의 아픈 기억을 전달하며 이해시키고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찰적 역사교육의 장소이다.

모슬포지역 일본군 전적지는 장소로는 원초적(primary)이며 규모로는 집단적 고통을 경험한 역사교육의 장소이다. 일제강점기 모슬포지역은 전쟁을 통해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군사시설이 세계 수준으로 원형 보존된 상태이고, 군사시설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강제 동원되어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은 현장을 방문한 한국, 동남아, 세계 방문객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 뜨거운 존재 혹은 상징 사실정확성을 지니게 한다.

더 나아가 일본군 군사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 성찰적 사고를 지니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정확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켜 인권과 평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을 창출할 수 있다.

### 주제어 \_dark tourism, 모슬포지역 일본군 군사시설, 역사학습의 장, 사실정확성

논문접수 : 2011년 10월 15일 심사시작 : 2011년 10월 16일 게재확정 : 2011년 10월 31일

## 1. 머리말

Dark tourism은 역사적으로 죽음, 재난, 고통, 참상이 일어났던 지역을 여행하며 반성과 교훈을 얻는 인간 행위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dark tourism의 지역으로는 9·11 사건이 발생했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 유대인대학살 현장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수용소, 수백만 명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휴전선, 연평도, 용산참사, 대구지하철, 남대문 등이 속하게 된다.

제주의 경우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국 내 많은 dark tourism의 장소를 지닌 지역으로 손꼽힐 수 있다. 제주는 한반도와 세계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많은 아픈 역사의 상처를 지닌 지역이다. 일본과의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일본 침략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100년 동안 몽고 통치 하에 놓여 있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삼별초의 최후 전투로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조선시대에도 왜구 침입이 잦아 많은 방어유적들을 축성하여 생존해 왔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제주를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지로 이용하려는 시도 역시 존재했다. 또한 한국 건국과 함께 발생한 4·3사건은 제주에 많은 희생자를 낳게 했으며, 6·25 동란에도 제주에는 제1육군훈련소가 설치되어 많은 병사를

---

1\_ 이 논문은 한국역사교육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지역과 역사교육')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하여 실은 것입니다

양성하고 전쟁터로 보내기도 했다.

이런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경험해야만 했던 침략, 찬탈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고통과 죽음의 지대인 제주는 오늘날 세계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 지금껏 제주의 관광은 자연 환경을 위주로 하여 상품화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더욱 자연 관광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dark tourism을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제주의 역사를 학습하고 제주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시대를 열려는 것이며,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을 보고 반성과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말 제주에 구축했던 일본군 전적지(모슬포지역)를 중심으로 역사 학습과 dark tourism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전적지가 dark tourism의 장소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역사 학습의 효과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 2. Dark Tourism의 대상지 구분과 역사 학습

### 1) Dark Tourism의 대상지 구분

관광은 모험을 즐기는 탐험부터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다양한 여행의 행태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전쟁터, 학살 장소, 수용소 등에 대한 관광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관광의 유형으로 개념화

하려는 시도가 폴리와 레논<sup>2</sup>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레논과 폴리는 dark tourism을 “인간의 재난과 죽음의 장소가 방문객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sup>3</sup> 하지만 오늘날 dark tourism은 협의적으로 재난과 죽음만이 발생했던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광의적으로 죽음, 고통, 폭력, 재난 등을<sup>4</sup> 기억할 수 있는 관광 대상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dark tourism의 대상지를 규정하는 것 역시 광범위할 수밖에 없고, 분류하는 방식 또한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죽음과 고통이 발생한 장소와 연관하여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었다.<sup>5</sup> 실제로 죽음과 고통이 발생했던 대상지를 원초적 장소(primary sites)로 규정하며, 나치의 유대인 학살 장소인 홀로코스트(holocaust camps), 워터루(waterloo) 전적지,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one), 남아공의 노예시장인 Robben Island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비교해서 실제로 죽음과 고통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지를 이차적 장소(secondary sites)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Yad Vashem), 4·3 위령비, 포로수용소, 전쟁 상징 기념비, 박물관, 동상, 묘지 등이 포함된다.

---

2 \_M. Foley and J. Lennon, “JKF and Dark Tourism: a Fascination with Assass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2, 1996, pp.198-211.

3 \_J. Lennon and M. Foley,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2000), p. 3.

4 \_P. R. Stone, “Dark Tourism - an old concept in a new world. *TOURISM, The Tourism Society*”, Quarter IV(25), 2005, p.20.

5 \_Lennon & Foly, 앞의 책; A. Wight & J. Lennon, “Selective interpretation and eclectic human heritage in Lithuania”, *Tourism Management*, 28(2), 2007, pp.519-529; E. Cohen, “Educational dark tourism at an in populo sit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1), 2010, pp.193-209.

하지만 보다 역사 학습의 효과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더불어 죽음과 고통의 규모 정도도 구분되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죽음과 고통은 역사적으로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이념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대다수인의 죽음과 고통이 발생한 대상지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라운드 제로, 오키나와 전적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서 일시적이며 우연적으로 소수인의 죽음과 고통을 가져온 대상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JFK, 존 레논, 최진실 묘지 등의 방문 대상지를 포함할 수 있다.

표 1 Dark tourism 대상지 구분		
구분	특징	내용
규모	개인적 죽음과 고통	일시적, 우연적, 이벤트적 요소가 많음.
	집단적 죽음과 고통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자연적 요소가 많음.
장소	원초적	실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 전쟁터, 학살터 등
	이차적	실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장소. 기념비, 박물관 등

Dark tourism의 대상지는 일반적으로 규모와 장소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상지의 방문은 방문객에게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즉, dark tourism은 죽음과 고통의 장소와 규모 보다는 방문객의 여행 기호와 취향에 따라 행위가 일어난다. 최근 들어 방문객의 기호와 취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와 장소 이외에 비극적 죽음과 고통이 어떤 의미를 방문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가 관건이 된다. 역사적인 죽음을 애도하고 기념하는 장소를 여행하려는 사거관광(thanatourism)<sup>6</sup>, 일시적인 순간

6 - P. R. Stone & R. Sharpley, "Consuming dark tourism: A Thanatological Perspective",

에 다수인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와 무덤을 여행하는 검은 장소 관광(black spots)<sup>7</sup>, 노예와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다수의 죽음을 맞이한 노예관광(slavery tourism)<sup>8</sup>, 종교적 이유로 인한 죽음과 불행을 해석하고 여행하는 순례관광(pilgrim tourism)<sup>9</sup>, 그리고 유명한 개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방문객이 찾는 세속관광(secular tourism)<sup>10</sup> 등 방문객의 다양하고 주관적인 기호와 취향에 맞게 dark tourism에 참여하고 있다.

각각의 dark tourism의 대상지는 방문객들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해석하며 여행의 동기를 부여받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기에 오늘날 학술적 논쟁은 뜨겁다. 이에 근거해서 오늘날 dark tourism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탈근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른 이론적 논쟁이 불가피하다.<sup>11</sup> 하지만 서구의 사회변동과 맞물린 외국 논쟁에서 벗어나 한국 지형에 맞는 비극의 장소를 방문하여 지난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反面教師)”<sup>12</sup>로 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관광현상<sup>13</sup>으로

Anal. of Tourism Research, 35(2), 2008, pp.574-595.

7 - C. Rojec, *Ways of Seeing-Modern Transformations in Leisure and Travel* (London: Macmillan 1993).

8 - C. Strang & M. Kempa, “Shades of Dark Tourism: Alcatraz and Robben Island”, *Anal. of Tourism Research*, 30(2), 2003, pp.386-405.

9 - Cohen 위의 글.

10 - Foley & Lennon 위의 글.

11 - 한숙영 · 박상곤 · 허중욱,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탐색적 논의”, 『관광연구저널』 25(2), 2011, 5-18쪽.

12 - 김기봉, “제노사이드와 역사교육”, 『4·3 2009 역사문화교육연수프로그램』 제주4·3연구소, 2009, 216쪽.

13 - 김사현 · 지선진, “근대-탈근대사회 맥락에서 본 관광패턴의 변화: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경기관광연구』 9, 2006, 15쪽.

dark tourism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대상지와 역사학습

방문객은 dark tourism을 선정할 때 장소와 규모의 측면도 주요하지만 여행의 동기가 되는 그 대상지의 사회역사적 의미성(socio-historical meaning)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방문객 혹은 방문기획자는 방문 전에 어느 정도의 역사를 습득하게 되며, 대상지를 통해 지난 죽음과 고통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얻는 학습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우리가 역사를 서술하고 교육할 때 잣대로서 기억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사실정확성이 첫째라면, 현실연관성이 둘째요, 보편가치성이 셋째며, 미래지향성이 넷째이다.”<sup>14</sup> 역사 학습은 사실정확성(authenticity)이 주요한 변수가 된다. Selwyn<sup>15</sup>은 사실정확성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방문지가 단지 일반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차가운 사실정확성(cool authenticity)”과 이에 반해 방문객에게 감정적인 파문을 일으키게 하는 “뜨거운 사실정확성(hot authenticity)”을 지적하고 있다.<sup>16</sup> 이와 유사하게 Wang<sup>17</sup>은 사실정확성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박물관에 보관된 “객관적(objective) 사실정확성”, 둘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상징

---

14 - 최호근, “과거사 청산과 평화·인권”, 『4·3 2009 역사문화교육연수프로그램』 제주 4·3연구소, 2009, 202쪽.

15 - T. Selwyn (eds.), *The tourist image: Myths and myth making in tourism*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96).

16 - Cohen 위의 글, p.195.

17 - N. Wang,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al of Tourism Research*, 26(2), 1999, pp.349-370.

적(symbolic) 사실정확성” 그리고 방문객의 감정적 개입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불러오게 하는 “존재적(existential) 사실정확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8</sup> 역사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Selwyn의 설명하는 뜨거운 사실정확성과 Wang이 설명하는 존재적 사실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Dark tourism의 대상지가 방문객의 ”사회적 정체성과 문화전통(social identity and heritage)“과 일치되면 될수록 뜨거운 존재 사실정확성을 통해 역사 학습이 이뤄지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sup>19</sup>

역사 학습과 관련된 dark tourism의 목적은 아픈 역사의 현장을 찾아 사회적 정의와 역사적 교훈을 얻고 이를 기억하며 미래지향적 사고를 지니게 하는 것이다. 뜨거운 존재 사실정확성이 방문객에게로 전달되었다면 방문객은 다음으로 현실연관성에 몰두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보편가치성을 찾게 되고, 미래지향적 교훈을 얻게 되는 교육적 사고가 자리하게 된다. 물론 사회정체성과 문화전통이 일치하지 않아도 방문객은 dark tourism의 대상지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객관적이고, 상징적 사실정확성에 근거하여 그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상징적 사실정확성에 근거해 사회를 이해하는 방문객은 뜨겁고 존재적 사실정확성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이 현실과 맞닿은 방문객보다 역사 학습의 효과는 다소 미약할 수밖에 없다.

야드 바셈(Yad Vashem)은 이스라엘에 새롭게 건립된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다. 따라서 장소로는 이차적이며, 규모로는 집단적이라 할 수 있다. 10여 만 평에 이르는 규모에 추모탑, 기억의 장막, 전시관을 지어 단지 유

---

18 -Cohen 위의 글, p.195.

19 - 앞의 글, p.195.

대인이란 명목 때문에 독일 나치에 의해 처참히 학살당한 600만 명의 죽음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가 범했던 인류 범죄를 전 세계인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인이 야드 바שמ을 찾았을 때와 유대인이 찾았을 때 역사 학습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은 나치 대학살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징적인 사실정확성에 근거하겠지만, 유대인은 한국인과 비교해서 보다 뜨거운 존재 사실정확성에 근거하여 방문지를 관광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은 오키나와 전적지를 여행하는 일본인과 그들의 방문을 지켜보는 오키나와 원주민 사이에서의 미묘한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역사학습의 관점에서 dark tourism의 대상지를 규정하게 되면 비극의 규모와 장소도 주요하지만 방문객의 사실정확성 인식 정도가 주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일제강점기 말 제주도에 주둔하며 구축한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dark tourism의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 3.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적 의미

한국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만큼 dark tourism의 대상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드물다.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전략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기에 항파두리, 환해장성(고려시대), 3개 읍성, 9개 진, 25개 봉수, 38개 연대(조선시대), 일본군 전적지(일제강점기), 4·3의 흔적, 제1육군 훈련소(제1공화국) 등이 대표적 장소이다. 역사 학습을 위해 사실정확성, 현실연관성, 보편가치성 그리고 미래지향성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제주의

dark tourism의 대상지는 4·3의 학살 장소와 4·3 평화공원 그리고 일본군 전적지를 꼽을 수 있다. 지금껏 4·3의 학살 장소와 4·3 평화공원과 관련된 dark tourism의 토론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하지만 일본군 전적지에 대한 dark tourism의 논의는 처음이며, 그 출발점은 일본군 전적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모슬포지역임에 틀림없다.

4·3 유적지와 비교하여 제주의 세계적 유형문화유산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일본군 전쟁 군사시설이다. 일본군 군사시설은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만주 등 동남아시아의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 남아있는 일본군 군사시설은 그 규모와 전술·전략적 배치 등에 희귀성을 지니고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크다.

#### 1) 제주도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의 의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제주도를 전쟁 수행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중일전쟁 시기에 제주를 청나라 공격을 위한 항공 중간 기착지역으로 설정했다. 일본 공군기가 중국 본토 공습 후 다시 귀환하는데 어려움을 감지한 일본은 1931년 3월 모슬포지역에 알드르비행장을 건설하게 된다. 항공 중간 기착 역할은 1944년 초까지 이어지는데 이 당시 제주도 주둔 일본군 수비 병력은 총 200여 명에 불과했다. 공격을

---

20 - 현혜경, “제주 4·3의 기억과 다크투어리즘”, 『4·3과 역사』 8, 2008, 305-339쪽; 송재호·김향자, “Dark Tourism의 장소로서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국내·민중공원 사례를 통한 접근”, 『관광연구저널』 23(1), 2009, 71-87쪽; 장애욱·최병길,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동기과 특성: 제주 4·3평화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3(1), 2011, 65-84쪽.

이행할 때에 제주의 역할은 군사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일본군이 본토방어로 전략전술이 바뀌게 되면서 제주의 군사적 역할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944년 10월 미군에 의해 필리핀이 점령당하자, 일본은 미군의 제주도 공략을 상정하면서 제주도를 전략상 요지로 인식하게 된다. 제주가 미군의 군사력에 제압당하면 규슈지방으로 상륙하는 미군을 일본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945년 2월 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과의 본토결전에 대비하여 7개 방면(일본 6개 지역과 제주지역)의 육·해군 결전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를 '결7호 작전'이라 명명하게 된다. 결7호 작전에 의해 1945년 4월 15일 제주도에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면서, 직속부대로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그리고 제108여단이 배치된다. 일본 본토의 부대와 만주의 관동군 등을 포함하여 종전까지 4개월 사이에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제주도에 집결하게 된다.

특히 일본군은 미군이 제주에 상륙하게 되면 주민들을 산중으로 이동시켜 군과 행동을 같이 하도록 군사작전을 세운다. 일명 옥쇄작전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주민 전쟁 동원의 실례는 유향도와 오키나와 등에서 일본군이 미군과의 전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1945년 4월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3개월 동안의 치열한 전투에서 오키나와를 점령(6월 22일)하게 되는데 일본의 옥쇄작전을 통해 사망자가 20만 명에 달하게 되고, 이 중에 민간인이 12만 2천명에 이르고 있다. 만일 일본 패망이 늦춰져 일본이 계속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면 제주에는 분명 일본군의 옥쇄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오키나와의 희생보다 적지 않았을 것이다.<sup>21</sup> 제주도에 남아있는 일본군 군사시설의 의미는 이처럼 제주도민의 전쟁 동원 및 무참한 살상 예고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실제 전

투가 일어나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오키나와의 일본군 군사력과 제주도 일본군 군사력을 비교하면 제주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오키나와에서의 희생보다 적지 않았을 것을 감안할 수 있다.

## 2) 오키나와와의 군사력 유사성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는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발생했지만 군사력으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여 시작부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투였다.

표 2 미군 전투력

미군 제5함대	상륙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1, 52, 54, 57, 58, 59 기동부대</li> <li>• 수송선 158척, LST 184척, LSM 89척</li> <li>• 전함 18척</li> <li>• 항공모함 40척</li> <li>• 구축함 200척</li> <li>• 함선 1300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제10군</li> <li>• 육군 24군단</li> <li>• 해병 제3상륙군단</li> <li>• 예비대</li> <li>• 제77보병사단</li> </ul>
총병력 18만 3000명이지만 지원부대를 합하면 55만명으로 추산됨.	
전사자 : 일본군 추산 4만 7000명, 미군 추산 1만 1933명	

55만명의 미군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군 제32군사령부는 1944년 3월 22일에 창설되고, 직할부대인 독립고사포제27대대, 제32군통신대, 제

21 \_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4, 2004, 273쪽.

32군병기근무대, 오키나와 육군병원, 덕지도(德之島) 육군병원, 궁고도(宮古島) 육군병원, 제127야전비행장건설대, 기타 다수의 항공지구부대를 보유하고, 4월과 6월 상순에 독립혼성제44여단, 독립혼성제45여단, 독립혼성제21연대가 편입되고, 7월말 만주에서 부산을 거쳐 들어온 제9사단, 제28사단, 독립혼성제59여단, 독립혼성제60여단이 편입되며, 8월 중순까지 제24사단, 제62사단, 독립혼성64여단이 배치되면서 부대의 윤곽을 잡게 된다. 또한 해군은 좌세보진수부부대(佐世保鎮守府部隊)의 지휘 하에 제4해상호위대와 오키나와방면근거지대(方面根據地隊)가 배치되었다.<sup>22</sup>

표 3 일본군 전투력<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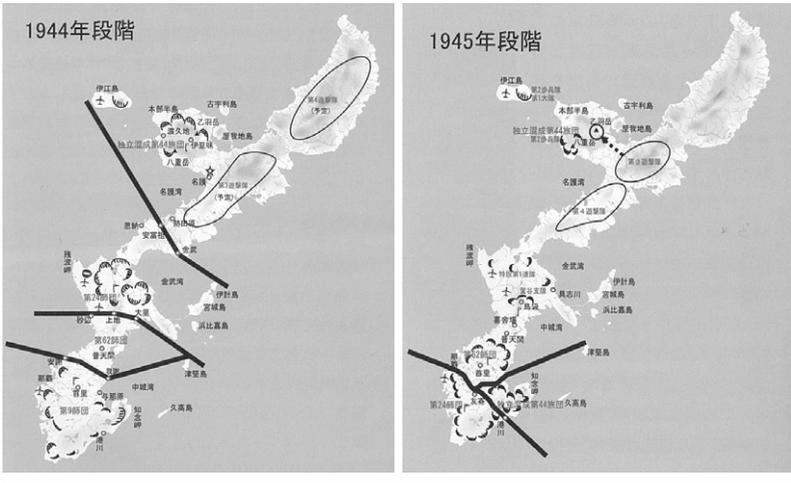
지구별	주요부대
沖繩 本島地區	제9사단, 제24사단, 제62사단, 독립혼성제44여단
宮古地區	제28사단, 독립혼성59여단, 독립혼성60여단
石垣地區	독립혼성제45여단
奄美地區	독립혼성제64여단
전사자	미국측 추산: 일본군 전사 6만 5000명 일본측 추산: 일본군 전사 10만 2000명, 주민 12만명

오키나와 본도에는 3개의 사단과 1개의 여단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사령부 전체의 군사력은 4개 사단과 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1개의 사단과 여단 병력은 1만명으로 추산될 수 있어서 사령부의 직할부대(육군병원, 비행대, 고사포부대 등) 그리고 해군부대를 합하면 최소 약 12만명 이상의 군사병력을 제32군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22 - 大田昌秀, 沖繩戰を生きた子どもち, (クリエイティブ21 2007), pp.35-37.

23 - 沖繩縣平和祈念資料館, 沖繩の戰爭遺跡. (沖繩縣平和祈念館 2009) p.4.

그림 1 제32군 군사배치도: 44년 초기와 45년 전투 직전<sup>25</sup>



〈그림 1〉의 군사배치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32군 사령부는 초기(1944년)에 미군의 공격지점을 예상하여 오키나와 본토를 4등분하여 군사를 배치하고, 미군이 육지에 상륙하면 바로 타격을 가하는 해안육탄방어 전술 전략을 구상했다. 하지만 1945년 미국 공격 시기에는 전술을 바꾸어 육상 진지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륙결전의 전술전략을 변경하여 진행한다. 이는 이미 군사력으로 미군을 전면적으로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 본토의 방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 확보를 위해 희생을 감안한 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와 비교하여 제주 주둔 일본군은 결7호 작전에 근거하여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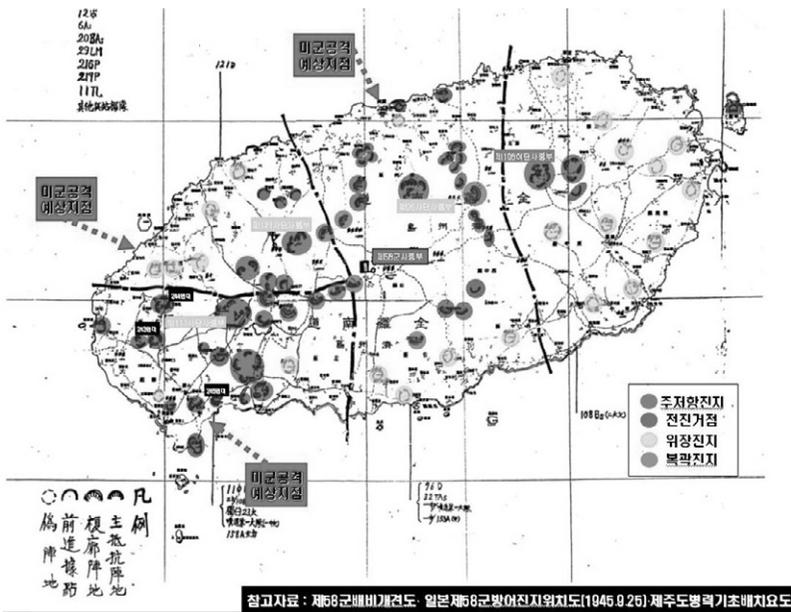
24 \_ 오키나와전에 참가한 일본군은 약 8만 2~3000명으로 기록상에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측 추산 전사자가 10만을 넘고 있어 수치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25 \_ 沖繩縣平和祈念資料館 위의 글, p.3.

년 4월 15일 제주도 방비 강화를 위해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면서 시작되었고, 미군이 제주도를 침공할 시기를 9월경으로 일본군은 예상하였으며 8월경에 대구에 집결해 있던 120사단이 배치하여 약 8만 4천명의 군사력을 보유할 예정이었다.

제주도 제58군 사령부 군사배치는 오키나와 같이 3개사단과 1개여단으로 구성되어 오키나와 본토에 편성된 제32군사령부와 군사력이 대등하다. 또한 군사배치 역시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오키나와의 1944년 단계에 4 지역으로 나누어 해안결전 준비를 한 양상도 유사하다.

그림 2 제주도 일본군 주둔 현황



<출처: 황석규, 2008<sup>26)</sup>>

26 - 황석규, "전쟁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이동, 배치, 편제, 전략 등에 관한 군사사회의 의미", 조성윤 외,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서울: 보고사, 2008), 213쪽

더 나아가 일본 본토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결7호 작전 중 제주도를 제외한 6지역의 군사력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표 4>에서 보듯이 결호작전지역에서 준비된 평균적 전력밀도는 km당 보병 대대가 0.2~0.9대대로 분포하고 있고, 기관총은 2.5~9정, 야포는 0.6~3.3문, 박격포(분진포)는 0.6~5문, 기타 화포는 0.8~2.5문 등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전력밀도는 km당 보병대대 0.3개, 기관총 3정, 연대포 0.9문, 박격포 1문, 화포 1.3문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보병의 밀도는 엔슈나다(遠州灘) 다음으로 북규슈 방면과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9개 상륙예상거점 중 8번째, 기관총과 박격포 6번째, 야포는 8번째, 기타화포는 7번째의 순위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에 근거하면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정도는 결전부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결호작전을 위한 병력배치 범위는 정면 100km로 최장인 엔슈나다(遠州灘) 150km 보다는 짧으나 북규슈 정면, 간토 구쿠리하마(九十九里濱)와 함께 2번째로 길이가 긴 편이다.<sup>27</sup> 이처럼 결7호 작전지역들을 비교해 봄으로서 제주도는 방어의역은 길고, 전력의 무장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만일 미군의 침공이 이뤄졌다면 오키나와 전투처럼 패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상태임을 판단할 수 있다.

오키나와 그리고 결7호 작전지역과의 비교에서 제주도는 일본 본토 방어에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유사하게 일본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첫째,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일본본토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기’ 작전이었다. 1944년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일본대본영은 본토방어 및

---

27 - 앞의 글, 202-203쪽.

표 4 결호작전 전력밀도표(1945.6.15 전후)<sup>28</sup>

		범위	보병대대(개)	기관총(정)	연대포(문)	박격포(문)	화포(문)
규슈 (九州)	남규슈 동정면	80km	0,6(1.3)	6(15)	2(3.7)	1,6(4.8)	2,5(5.4)
	남규슈 서정면	70km	0,4(1)	3(14)	1(3)	1,2(4.8)	1,4(4.8)
	북규슈 정면	100km	0,3(0.9)	2,9(10)	0,6(1.9)	1,2(3.7)	0,8(3)
고치(高知) 정면		36km	0.9	2.5	3.3	5	4
제주도 정면		100km	0.3	3	0.9	1	1.3
엔슈나다(遠州灘) 정면		150km	0.2(0.3)	2,5(3.8)	1(1.5)	0,8(1.2)	0,9(1.2)
간토 (關東)	가시마나다 (鹿島灘) 정면	70km	0,6(1.4)	59(17)	2,4(4)	0,9(7)	1,9(8)
	구주쿠리하마 (九十九里濱) 정면	100km	0,4(1.0)	4,5(13)	2(3)	0,6(5)	1,9(6)
	사가미만 (相模灣) 정면	40km	0,8(2.3)	9(31)	2,5(5)	1,5(1.3)	2(1.2)

※ 괄호 내는 방면군 직할 결전병력을 당해 방면으로 투입하는 경우의 전력 밀도

수세 역전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특히 일본 본토가 아닌 지역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오키나와와 제주도를 적절한 위치라 판단하였다. 둘째, 미군에 타격을 가해 미군의 군사력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미군과의 협상 시에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오키나와와 제주도가 필요했다. 미군에 일정한 타격을 줌에 따라 본토결전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미군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가 있다. 따라서 다른 결7호 작전지역 보다 군사력을 미약하게 지원하며 일본대본영은 본토와 격리된 지역에서 옥쇄작전을 통해 최후의 일각까지 시간을 벌며 미국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작전을 감행하고자 했다.

28 - 參本第2課, “各 要域別 1km당 戰力密度概見表” 『本土決戰關係兵備綴(1945년 7월 중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오키나와와 다르게 제주도만이 지닌 의미도 존재한다. 첫째, 전쟁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물자수송이 필수조건이 된다. 이때에 제주도를 포함한 조선해협은 일본의 전쟁계속의 생명선이 된다. 제주도가 함락되면 조선해협에 미군 잠수함 및 함선의 자유로운 항해를 허락해 버리는 꼴이 된다. 따라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않아도, 제주도를 공략 받는 것만으로 일본의 전쟁계속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미군의 최종 목표인 일본수도 도쿄가 있는 관동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항공기지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가능 지역으로는 규슈 남부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임에 틀림없다.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전진기지로써 항공기지가 건설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군은 미군에게 제주도 상륙을 허락해서는 안 되었고, 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제주도 서남부 지역으로 판단했다. 셋째,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전술 전략이었던 내륙결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주도는 해안결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이행하는 결국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전략을 활용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제주도 서남부지역인 모슬포지역에 제58군사령부의 가장 강력한 제111사단을 배치하게 된다.

### 3) 모슬포의 군사배치와 군사시설의 실태와 주민동원

전쟁말기 모슬포지역에 주둔한 일본군의 작전목적은 1945년 7월 13일 우메즈(梅津) 참모부장이 제17방면군 고즈키 요시오(上月良夫) 사령관에게 보고한 내용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사령관에게 「제주도에 있어서 작전목적은 적의 공중, 해상 기지설정 기도를 분쇄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작전초기에 있어 공세를 취하여 적을 격멸하도록 작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9</sup> 다음 날 긴급기밀작전 전보의 별지에는「일사필쇄의 특공에 의한 육박공격을 주체」로 한다는 요강이 첨부되고 있다. 육박공격이란 병종을 불문하고 전차에 대해 폭탄을 안고 몸 하나로 돌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하면 상륙 시 공중해상 특공을 빠져나와 상륙해 온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인명을 무기로 특공을 진행한다는 작전을 함축하고 있다.<sup>30</sup> 결국 제 111사단은 제주도 서남부지역에서 연안구속병단으로서 해안결전에서 육박공격으로 미군 상륙을 저지하고 타격을 주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제111사단 사령부는 해안부에서 약 10km 북으로 올라온 당오름, 도너리오름 그리고 원물오름을 원으로 하여 위치하였고, 상륙하는 미군의 정세를 파악하여 작전을 하달하고 포지원사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예하부대로 3개의 연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보병제245연대는 단산, 산방산, 월라봉, 논오름 일대에 분포하고, 보병제243연대는 가마오름을 중심으로 이계오름과 저지오름 일대에 분포하고, 보병제244연대는 새신(신서)오름을 중심으로 구분오름과 당산봉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사단본부와 연대본부들은 주저항진지로서 미로와 같은 갯도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제111사단의 병력은 사령부 245명을 비롯하여 각 연대 1천 1백명 가량으로 배치시키고 이외에 공병, 포병, 통신, 치중, 야전병원 등을 배속시켜 1만 2천명의 병력을 지니고 있지만 병력 증강을 제58군 사령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독립예하부대를 배속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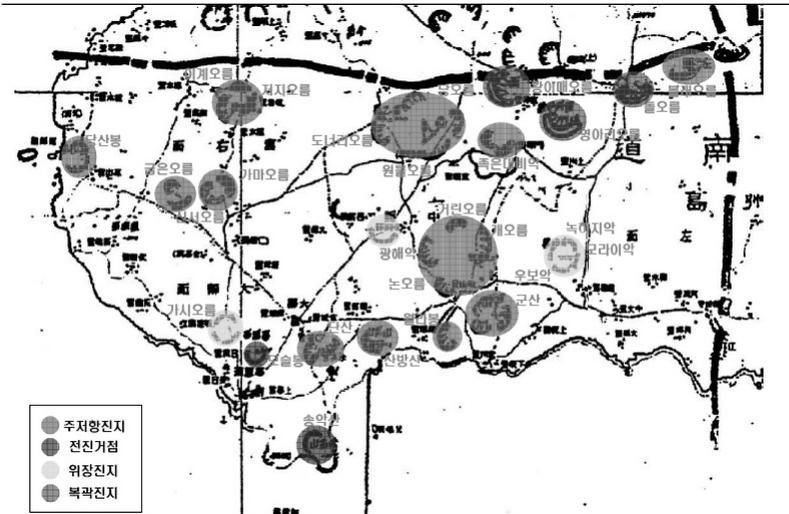
제주도 서남부지역에 일본군 군사시설은 알드르비행장과 그 주변이 대표적이다.

---

29 - 츠카사키 위의 글, 257쪽.

30 - 앞의 글, 258쪽.

그림 3 제111사단 배치도



〈자료: 황석규, 2008<sup>31)</sup>〉

알드르<sup>32</sup> 항공기지는 일본 해군에 의해서 구축된 기지로서 처음 건설 당시에는 20만평이었다가 오무라항공부대가 주둔 배치되면서 40만평, 1944년에는 66만평, 1945년 종전될 때에는 80만평으로 확대되었다. 활주로 규모는 남북방향 길이 1,400m, 폭 70m, 유도로는 3,500m×2,500m에 이른다.

격납고는 모두 20기로서 알드르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는 19기가 원형대로 남겨져 있다. 모두 콘크리트로 위를 덮은 유개(有蓋) 격납고로서 폭이 20m, 높이가 4m 내외에 이르고 있다. 격납고는 근처 바

31 - 황석규, 앞의 글, 215쪽

32 - 알드르는 모슬봉을 기준으로 웃드르(위쪽에 있는 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 5 알드르 항공기지와 송악산 일대 전적지

유적명	위치	규모
알드르비행장	상모리 1670번지 일대	약 100만㎡(305,500평)
송악산 해안 어뢰정 갯도진지	상모리 산이수동 송악산해안	총 16개, 길이 총 약 346m
격납고	상모리 1563번지의외 18필지	19개소 총 3,990㎡(1,207평)
비행장 내 지하벙커	상모리 1670번지	약 980㎡(296평)
이교동 통신시설	상모리 3262-1번지	651㎡(197평)
탄약고	상모리 3415번지	198㎡(60평)

닷가에서 가져온 잔자갈과 모래, 시멘트 그리고 철근 등을 혼합해서 만들어졌고, 위에는 흙과 잔디로 위장하여 미군의 공습이나 폭격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격납고에는 대부분 아카툼보(Akatombo)를 적재했다.

비행장 활주로 인근에 지하벙커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낮은 언덕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용도는 지휘본부 혹은 통신 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송악산 해안가에 16개의 인공동굴이 존재한다. 이 인공동굴의 용도는 자살공격용 어뢰정을 숨겨놓기 위한 기지로 구축되었다. 인간어뢰라고 불리는 카이텐(Kaiten · 回天)의 기지이다. 바다로 어뢰정을 띄워 미군함대를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실제 송악산 해안에 카이텐이 배치되지 않았다. 어뢰정기지 구축 당시 는 길이가 50~60m에 이를 정도였지만 지금은 점차 해안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길이가 짧아진 상태이다.

대정읍 상모1리 이교동에 있는 통신시설은 현재 마을 상여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이 통신시설은 규모 등으로 볼 때 제주도 주둔 일본군만이 아

니고 일본 본토와도 통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갱도진지는 지하에 숨어 미군의 항공 및 포 폭격을 피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갱도진지는 4종류의 진지로 구분되며,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위장진지(偽裝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로 명명된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의 흡수·교란 및 적의 진행 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두고, 적에게 전개방향을 틀리게 하여 주저항진지에 접근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주저항진지는 진지구축의 완성도가 높으며 전력을 다하여 방어하는 진지로서 보병의 항전지대와 그 후방의 주력보병 및 그 설비로 이루어진다.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된다.<sup>33</sup> 제주도에 갱도진지는 104곳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제111사단에 존재하는 갱도진지가 34개로 제주도 주둔 다른 지역보다 많다. 특히 가장 주요한 방어진지인 주저항진지의 수가 제주도 전체 54개 중에 22개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수이며, 이로서 얼마나 서남부의 제111사단의 병력 배치에 중요성을 두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밖에 제111사단은 전진거점 5개, 위장진지 2개 그리고 복곽진지 5개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모슬포지역의 갱도진지는 셋알오름, 송악산, 단산, 산방산 등이 대표적이다.<sup>34</sup>

(1) 셋알오름 갱도진지: 셋알오름 지하 갱도진지는 알드르비행장과 송악산 어뢰정기지를 포함해 일본군 모슬포 전적지의 주요한 시설이다. 갱도

---

33 \_ 박찬식, “제주도내 오름과 일본군사유적”, 한라산생태문화연구원, 『한라산의 역사·유적』(제주: 도서출판 각, 2006), 173-174쪽.

34 \_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III: 서귀포시권』(제주: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9) 참고.

표 6 모슬포 갯도진지

유적명	위치	규모
동알오름 갯도진지	상모리 동알오름 지하	길이 약 100m
셋알오름 갯도진지	상모리 셋알오름 지하	길이 약 1,220m
셋알오름	상모리 셋알오름 지하	길이 약 100m 내외 추정
고사포진지	셋알오름	반경 약 4.3m, 높이 1.5m, 2기
	셋알오름	반경 약 4.3m, 높이 1.5m, 2기
송악산 남쪽 절벽 갯도진지	상모리 산이수동 송악산해안	폭 1.5m, 높이 1.9m, 길이 21m
송악산 북쪽 중턱 갯도진지	상모리 산이수동 송악산	길이 약 733m
단산 갯도진지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길이 48m, 폭 2.1~2.4m, 높 이 1.8m 정도
산방산 갯도진지	안덕면 사계리 3124-1번지	길이 40~80m, 폭 1.5m, 높이 2m 정도

진지의 규모는 일본 본토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가장 큰 해군 제1항공 기술공장(약 34,800㎡)이나 나가노현 마츠시로 대본영의 지하시설(약 32,000㎡)보다 1.5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 4m, 높이 3m 내외로서 차량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규모로서 연면적 5,700㎡이다.

(2) 산방산 갯도진지 : 산방산에는 독립산포병제20연대 또는 야전중포병 제15연대 병력이 주둔하면서 화순항으로 들어올 미군에의 포사격과 관측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진지 구조의 모형은 ㄱ자형이며 관통되어있다. 갯도 입구에서는 송악산을, 출구에서는 화순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산방산의 7부 능선에 있다. 갯도는 전체 길이가 48m 정도로 조면암의 단단한 바위를 뚫고 만들어져 현재에도 갯도 벽면에 착암기로 구멍을 낸 흔적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3) 단산 갯도진지 : 단산에 구축된 갯도 진지는 4 곳으로 확인되었다. 단

산에는 독립산포병제20연대 또는 야전중포병제15연대 병력 일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진지 구조는 Y자형 등이 존재한다.

(4) 송악산 갱도진지: 미군 상륙시 도로 파괴와 전차 저지 전술을 위해 구축한 진지로서 규모는 978.16m로 파악되었으며, 입구가 25곳이다. 길이가 길고 비좁게 미로처럼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주둔군은 일상생활에서 주민과의 갈등, 착취, 불순분자 색출행위는 거의 없었다. 일본군 지휘부가 일체 주민과의 만남과 밀거래(물물교환)를 공식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주둔군은 식량부족으로 주민들과의 비밀스런 물물교환이 이뤄졌는데 주민들은 보리떡, 달걀 등을 제공하면 주둔군은 대부분 담배로 교환하였다. 일본 주둔군은 주민에게 대부분 해로움을 주지 않은 대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강제동원, 공출 등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증언에서 동일성을 보여주는 현상은 강제 징병, 징용, 노무동원 그리고 공출로 나타났다. 1922년에서 1933년생까지 인터뷰한 결과, 강제노무동원인 경우는 알드르비행장 확장공사작업과 석알오름, 송악산 해안가 등지의 갱도진지구축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은 해가 뜨면 시작하여 해가 지면 마치고, 2달 동안 노무 동원되고 2달 동안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제주 노무자들은 허술한 함바에 거주하면서 힘든 노동과 어려운 잠을 청해야 했다. 식사는 부실하였으며 양이 적어 집에서 작업장으로 갈 때 미숫가루를 가지고 가서 허기를 채우곤 했다. 1924년생부터 연성훈련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주지의 초등학교 교정에서 일주일에 두 차례 등교하고 짧게는 한 달이고 길게는 1년 동안 일본어, 정신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징병되고 있다. 연성훈련을 마친 제주 청년의 많은 수가 제주도 일본군 주둔지에 징병되어 갱도진지구축에 동원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가장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은 공출이다. 보리, 고구마, 면화, 낫쇠 등 군수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출됐다. 심지어 항공기용 알코올연료를 뽑기 위해 말린 고구마도 강제 공출되었다. 밭의 크기에 맞춰 공출량을 정하였고, 공출량을 채우지 못하면 길을 닦는 일에 강제 동원되거나 심한 경우는 구타당하거나 구속되기도 하였다.

어린이들도 부친 혹은 형제가 강제노무동원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가해야 했다. 모슬포 연병장 안에는 어린이부대(子供部隊-고도모부타이)가 15명 정도 소속되어 있었고, 이들은 작업도구(곡괭이, 삽, 끌, 망치)의 장부를 정리하거나, 사무실 청소 혹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여 일본군에게 물고기를 제공하였다. 일본인 노무책임자들은 일반노무자들에게는 작업 시에 구타 및 연대 기합을 행하였는데, 어린이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 4. 역사 학습의 장

##### 1) 관광 상품화 혹은 역사학습의 장

지금까지 일본군 군사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쟁점을 보면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보다는 관광자원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 2003년 4월에 제주도는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를, 2005년에 제주도동굴연구소는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보고서』를, 2001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제시하고, 2005년에는

남제주군에서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전자 두 작업들은 몇 년 동안에 걸친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보고서로서 일본군이 구축한 지하 갱도진지들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실제 규모를 과학적 측량 방법을 바탕으로 실측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후자 두 작업은 일본군 전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작업들은 역사·문화적 사실에 근거한 전쟁 유적지의 설명보다는 갱도진지의 규모 혹은 관광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다. 이에 근거해서는 일본군 군사시설의 역사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거나 평화의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는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관광 상품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1차 분석 결과 ‘송악산 코스’, ‘일출봉 코스’, ‘삼매봉 코스’, ‘비양도 코스’, ‘사라봉 코스’의 5코스를 선정하고 있으며,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악산 코스’와 ‘일출봉 코스’, ‘삼매봉 코스’ 등이 상품성 및 연계성 등에서 보다 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상품성, 접근성, 연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 ‘송악산 코스’가 가장 이상적인 전적지로서 관광 상품화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일제하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한라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고난의 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와 함께 2007년과 2008년에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진행한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의 조사보고서 『일제 동굴진지 등극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I, II』,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칭)제주평화대

공원 조성 기본계획』, 그리고 2011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의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제주시 동지역권)은 역사와 관광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의 현실연관성과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과 비극의 현장을 역사교육의 장과 역사문화관광 패턴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 2) 역사학습의 장으로서 제주 일본군 전적지

일본 대본영은 결호작전 중 최하위 수준의 병력과 화력을 지닌 제주도 결7호작전이었지만 제주도를 쉽게 미군에게 이양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 본토 밖에서 본토방어를 위해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일격에 타격을 주어 조약체결 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남부지역에서의 전투는 제주도 전체 일본군과 주민이 하나되는(全島一致) 옥쇄작전(玉碎作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미군이 상륙하였다면 츄카사키의 표현처럼 일본군에게 살해된 제주도민의 수는 오키나와 전(12만명)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능가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주도(특히 모슬포지역)에 남아있는 일본군 전적지는 일본 본토와 동남아시아의 다른 전적지보다 원형이 확실하게 남아있고 규모 역시 광범위하게 펼쳐진 실정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정확성은 역사 학습 효과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역사적으로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사회적 정체성과 문화전통이 유사하다면 역사 학습의 효과는 증대될 수 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존재 사실정확성만이 역사적 인식이 전부인 것은 될 수 없다. 역사는 현재적 관심과 관련하여 과거의 사실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역사의 사실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진행되는 현실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연관성으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는 일본군 전적지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중요하다. 그 중 하나는 부정적 과거사를 분석하는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사 청산의 현재·미래적 가치를 확인하는 차원이다.”<sup>35</sup>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죽음과 고통 그리고 유린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하며, 일제강점기 일본군 전적지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가치는 무엇이고, 미래 발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5년 제주도가 공포한 ‘평화의 섬’과 연결하여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미래적 가치로 새롭게 정립하고, 전쟁유적시설들이 제주인과 더불어 세계인들에게 과거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킬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를 지탱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군 군사유적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역사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전적지를 보존, 정비 및 개발의 필요성, 기대효과, 정책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적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이 따라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역사성 인식과 미래지향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

35 - 최호근 위의 글, 211쪽.

이런 관점에서 일본군 전적지는 dark tourism의 대상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김동전<sup>36</sup>은 대평화공원 조성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모슬포지역의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내용의 사실적 전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둘째는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로서 침략과 전쟁, 평화와 안전, 인류의 보편적 인권 문제 등이 중심적인 구성요소들이어야 한다. 셋째는 자극적이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내용을 냉정하고 쉬운 내용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와 인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넷째는 주요 시설물이나 흔적 없이 사라진 군사시설의 위치마다 객관적 고증을 거친 안내판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로 등의 보완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아있는 개개의 전쟁유적과 함께 당시 실상과 비극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칭 태평양전쟁전시관과 같은 시설물 도입이 필요하다. 즉 알드르비행장 일대는 거대한 전쟁야외박물관으로서 원형보전에 중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칭 태평양전쟁전시관과 같은 공간은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역사교육 및 평화와 인권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군 전적지를 역사문화 교육 및 관광 대상지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내·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 특히 동남아시아 청소년층에게 사실적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동남아와 일본과의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가 남아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군 전적지는 단지 보

---

36 - 김동전, “시사점과 보존방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8) 187-188쪽.

는 것 이상의 역사적 배움의 관광으로 승격시켜야 하며, 동남아시아 평화 도시의 실천의 장소로 개발되어야 한다. 오히려 일본군 전적지에서 보행이 불편하고 경제적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계 속의 제주역사의 장으로서 복원 및 정비가 필요하다. 전적지 코앞까지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편리함을 주는 도로망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장소이며 평화이미지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인 경우 도보, 자전거 및 야영을 할 수 있는 탐사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서 모색되어야 한다.

## 5. 결론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선정과 더불어 세계7대경관으로 지정되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로서 자연경관을 보고자 하는 관광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역사·문화적 관광을 통해 제주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여행 패턴에 대한 사고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상으로 자연과 인문 관광이 연계된 올레길에 많은 방문객들이 몇 년 사이에 놀라운 증가세를 불러오고 있음에서 제주지역에 새로운 여행 패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역사적 비극과 재난을 통해 제주사회를 인식하려는 dark tourism에 대한 여행 패턴은 지금 첫 걸음 단계에 불과하다.

역사적 사실객관성을 조사하고 연구한 작업들이 확대되면서 4·3비극의 장소와 평화공원 그리고 모슬포지역 일본군 군사시설에 관한 dark tourism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4·3평화공원에 대한 dark tourism

의 논의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일제전적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이뤄지지 못했다. 역사적 의미가 다르지만 두 장소는 제주 dark tourism의 새로운 관광 패턴을 창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특히 제주의 dark tourism은 제주사회의 아픈 기억을 전달하며 이해시키고 세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성찰적 역사교육의 장소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모슬포지역 일본군 전적지는 장소로는 원초적(primary)이며 규모로는 집단적 고통을 경험한 역사교육의 장소로 규정할 수 있다. 모슬포지역은 4·3평화공원에 비해 현장감이 뚜렷하여 방문객에게 존재적 사실정확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일제강점기 모슬포지역은 전쟁을 통해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군사시설이 세계 수준으로 원형 보존된 상태이고, 군사시설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강제 동원되어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은 현장을 방문한 한국, 동남아, 세계 방문객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 뜨거운 존재 혹은 상징 사실정확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군 군사유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거대 프로젝트인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 성찰적 사고를 지니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는 역사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정확성과 존재 사실정확성을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켜 인권과 평화가 살아 숨 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을 창출할 수 있다. 일본군 전적지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현장의 군사시설을 관람하며 세계인으로서 서로 상생·융합하며 살아가야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

## [Abstract]

### Jeju Dark Tourism and Historical Studying

- focused on Japanese Military Installation in Mosulpo Region -

Hwang, Suk Kyu(Jeju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Dark tourism are the human act which travels a dead, a misfortune, a pain and the disastrous state area. The visitor through travel makes a reflection and an instruction gain. In the case of Jeju has made special geopolitical position many destinations of the dark tourism,

The historical research was magnified continuously and the place of 4·3 and the Japanese army military installation led the discussions of dark tourism. Two places are important location of dark tourism in Jeju and creates a new sightseeing pattern.

Specially two places deliver a sick history in the visitor and are a place of historical studying and makes be will be able to grow with the cosmopolite. Japanese army military installation in Mosulpo region is primitive area and the place where experiences a group pain. Mosulpo region did not occur victims through the Second World War. But military installation is the condition which is preserved to world standard, This historical fact makes in the existential authenticity which is hot the many person.

Furthermore, Japanese army military installation The military installation is the place where does to make a reflective thought keep in Jeju which advances the

huge project as the peace island and the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is to create through historical education a new social character of Jeju which tried to defend with human rights and peace.

---

**Key word** : dark tourism, Japanese army military installation in Mosulpo region, a place of historical studying, authenticity